



주요국 손해보험회사 수익성 비교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연구

- 최근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월등하게 나타나자 일각에서 이익의 적정성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됨.
 - 본고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이익(사업)구조를 미국,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미국·일본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자본이익률(이하 'ROE')이 높은 반면, 자산이익률(이하 'ROA')은 낮은 경향이 있음.
 -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높은 ROA를 실현함.
 - 일본 손해보험회사는 2011년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2014년까지 수익성이 낮았으나, 최근 수익성을 회복하여 2015년도 ROA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보다 높음.
- 이는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부채규모에 비해 적은 자본이 요구되는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 적립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험부채에 비해 자본이 적음.
 -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적립금은 보험영업이익과는 무관하며, 계약자에게 공시이율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채규모 대비 투자이익이 높지 않아 ROA가 낮음.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보험영업 부문 수익성은 미국·일본 손해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익의 안정성이 높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합산비율 평균은 한국 98.3%(저축보험료 제외), 미국 96.6%, 일본 94.3%이며, 2016년(9월 기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94.1%로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임.
 - 단, 2011년 이후 합산비율의 평균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가 96.9%로 가장 낮으며, 보험영업이익의 안정성이 가장 높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수익성이 미국, 일본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사업모형의 차이로 인해 이익 안정성과 ROE는 높은 반면 ROA는 낮은 특성이 있음.
 - 장기 저축보험 사업은 자산 규모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수익성이 높지 않아 ROA를 낮춤.

1. 분석배경



■ 2016년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4,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29억 원(27.7%) 증가함.

-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수익성 지표(ROE, ROA)는 2012년 수준으로 회복됨.

〈표 1〉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ROE, ROA

(단위: 억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E
당기순이익	25,703	23,069	19,381	23,303	27,152	34,681
ROE	15.3	11.1	8.7	9.5	9.7	11.3
ROA	2.4	1.7	1.2	1.3	1.3	1.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보도자료.

■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히, 금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더욱 우월해 보임.

〈표 2〉 업권별 ROE, ROA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E	
ROE	은행	10.1	6.0	2.9	4.3	2.6	-
	생보	8.4	7.6	5.5	5.9	5.8	-
	손보	15.3	11.1	8.7	9.5	9.7	11.3
ROA	은행	0.8	0.5	0.2	0.3	0.2	-
	생보	0.9	0.8	0.6	0.6	0.6	-
	손보	2.4	1.7	1.2	1.3	1.3	1.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보도자료.

-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업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이자 일각에선 보험료인상 및 보험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
 - 가격자율화로 인해 자동차 및 실손 보험료 인상만 이루어지고 다양한 보장 상품 제공이 없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임.¹⁾
 -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손해보험회사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음.
- 본고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이익(사업)구조를 미국,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5년간 수익성을 비교함.
 -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의 이익(사업)구조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2. 손해보험회사 이익구조



-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매출액)는 위험·부가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됨.
 -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보험영업이익의 수익원임.
 -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재원이며, 부가보험료는 계약 모집 및 유지관리, 보험료수취 등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임.
 - 저축보험료는 부채로 적립(보험료적립금)되어 자본과 함께 투자영업이익의 재원임.
 - 저축보험료는 계약만기 시 환급금의 재원임.
 - 자동차 및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는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로만 구성되나, 장기손해·개인연금보험²⁾의 보험료는 위험·부가보험료와 더불어 저축보험료로 구성됨.
-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보험리스크 관리로부터 얻는 보험영업이익과 자산운용수익에서 부채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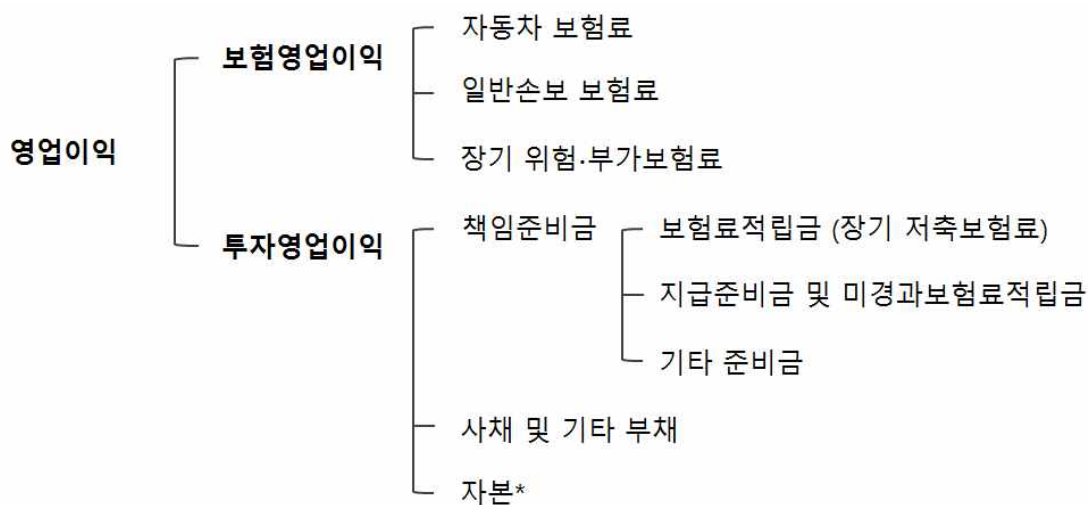
1) 동아일보(2017. 2. 5), “사상 최대 실적 올린 손보사들, 보험료 줄인상 ‘눈총’”.

2) 이후에는 편의상 장기손해·개인연금보험을 장기손해보험으로 간략하게 지칭함.

한 이자지급을 차감한 투자영업이익으로 구분됨.³⁾

- 보험영업이익은 3이원분석의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을 합산한 개념이며,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율차익임.
 -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 일반손해 및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부가보험료(경과보험료)에서 발생 손해액과 순사업비를 차감한 것임.
 - 투자영업이익은 책임준비금, 사채 및 기타 부채, 자본을 투자하여 얻은 수익에서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차감한 것임.

〈그림 1〉 영업이익의 원천



주: * 비운용자산을 차감한 자본.

3. 전체 수익성 비교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ROE는 미국·일본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지만, ROA는 낮은 경향이 있음.

³⁾ 본고에서 논하는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의 개념은 현행 회계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며, 과거 3이원분석의 이익과 일치하는 개념임.

-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높은 ROA를 실현함.
- 일본 손해보험회사는 2011년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수익성이 낮았으나, 최근 수익성을 회복하여 2015년 ROA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보다 높음.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수익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특징도 있음.

〈표 3〉 한국, 미국,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ROE, ROA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E
ROE	한국	15.3	11.1	8.7	9.5	9.7	11.3
	미국	3.5	6.0	10.0	8.2	8.3	-
	일본	-5.8	3.5	3.8	5.7	8.0	-
ROA	한국	2.4	1.7	1.2	1.3	1.3	1.5
	미국	1.3	2.2	3.9	3.3	3.2	-
	일본	-0.9	0.6	0.7	1.3	1.8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보도자료;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일본 손해보험협회.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ROE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부채에 비해 자본이 적기 때문임.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자본/부채 비율(Equity to debt ratio)은 2015년 기준 15%로 미국, 일본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낮음.

〈표 4〉 한국, 미국,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자본/부채 비율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18.2	17.3	15.1	15.5	15.0
미국	57.7	60.0	65.8	66.0	62.7
일본	18.3	23.0	25.2	31.6	28.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일본 손해보험협회.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자본/부채 비율이 낮은 이유는 부채규모에 비해 적은 자본이 요구되는 장기 손해보험 저축보험료 적립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는 부채의 보험료적립금 항목으로 적립되는데, 보험리스크가 없으며 대부분 금리연동형이므로 금리리스크가 낮아 해당 요구자본이 많지 않음.
 - 예를 들면, 삼성화재의 2015년도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 비중은 84.8%인데 금리위험액은 9,574억 원으로 보험위험액 1조 2,543억 원보다 적음.⁴⁾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 비중은 2015년도에 39.8%이며,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6%⁵⁾에 이릅니다.
- 일본 손해보험회사도 2000년 이전에는 장기 저축성(만기환급형) 손해보험 상품의 매출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그 비중이 하락하여 2015년도 4.6%에 불과함.
 -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자본/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보다는 높고, 미국 손해보험회사보다는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 주요국 손해보험회사의 종목별 매출비중¹⁾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자동차	한국	23.6	19.7	18.7	18.8	20.0	20.2
	미국	41.7	41.3	41.3	41.6	42.4	41.7
	일본	50.8	51.8	52.7	52.6	52.7	52.1
일반손해	한국 ²⁾	36.4	36.7	38.5	39.3	40.1	38.2
	미국	58.3	58.7	58.7	58.4	57.6	58.3
	일본	42.1	42.0	41.9	42.2	42.7	42.2
저축보험료	한국 ³⁾	39.8	43.5	42.7	42.0	39.8	41.6
	미국	0.0	0.0	0.0	0.0	0.0	0.0
	일본 ⁴⁾	7.1	6.2	5.4	5.2	4.6	5.7

주: 1) 원수보험료 대비 비중.
 2) 장기손보,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의 위험·부가보험료 포함.
 3) 장기손보 및 개인연금의 저축보험료.
 4) 만기환급형 보험의 보험료로 실제 저축보험료의 비중은 제시된 수치보다 낮을 것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일본 손해보험협회.

■ 저축보험료는 보험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부채(적립금)규모에 비해 투자이익도 작아 ROA를 낮춤.

4) 삼성화재 경영공시 참조.
 5) 2016년 9월 말 기준; 손해보험협회 통계 참조.

-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 규모에 비해 투자이익이 많지 않음.
 - 장기 위험보험료 부문 부채도 예정이율을 지급해야 하므로 저축보험료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투자이익률이 높지 않음.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보험료적립금 운용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 2016년도의 경우 보험료적립금 운용으로부터 30~40bp 정도의 투자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임.⁶⁾
 -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이익 창출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저축성보험의 최대 만기가 15년이기 때문에 과거 판매한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의 이차역마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만약 ALM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금리 변화에 따른 자본감소나 이차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4. 부문별 수익성 비교



가. 보험영업이익

1) 전체 이익

- 일반계정 합산비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보험영업 이익률은 미국·일본 손해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이익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합산비율은 일본 94.3%, 미국 96.6%, 한국 98.3%임.
 - 보험영업 이익을 적절히 추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는 제외하였음.
 - 일본은 세부 데이터의 부재로 저축보험료 부분을 제외하지 못하였으나, 그 비중이 낮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6) 상장사 IR자료 참조.

- 2016년도(9월 기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94.1%로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임.
- 단, 2011년 이후 평균 합산비율의 경우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가 96.9%로 가장 낮으며, 보험영업 이익의 안정성이 가장 높음.
 - 보험영업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이유는 대재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6〉 주요국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⁵⁾	평균
손해율 ¹⁾	한국 ⁴⁾	63.4	64.6	64.9	65.7	65.8	63.8	64.7
	미국	79.3	74.2	67.4	68.7	-	-	72.4
	일본	83.4	70.4	64.1	62.3	59.9	63.4	67.3
사업비율 ²⁾	한국 ⁴⁾	31.3	33.2	34.5	32.2	31.9	30.3	32.2
	미국	28.4	28.2	28.2	27.8	-	-	28.2
	일본	33.8	33.0	32.3	32.2	32.1	31.8	32.5
합산비율 ³⁾	한국 ⁴⁾	94.7	97.8	99.4	97.9	97.7	94.1	96.9
	미국	107.7	102.4	95.6	96.5	97.8	-	100.0
	일본	117.2	103.4	96.4	94.5	92.0	95.2	99.8

- 주: 1)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2)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3)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4) 장기손보 및 개인연금의 저축보험료 제외.
 5) 2016년 9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일본 손해보험협회.

2) 종목별 이익

- 지속적으로 104%를 상회하던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은 2016년 들어 미국 손해보험회사와 유사한 100% 수준으로 하락함.
 - 합산비율 하락의 원인은 보험료 인상, 렌트비 지급 기준 변경, 경미사고 기준 확정 등인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최근 5년간 102% 내외의 합산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손해율은 77% 수준으로 우리

나라에 비해 10%p가량 낮음.

- 미국은 상업용 자동차가 제외된 수치만을 공개하여 정확한 전체 합산비율을 알 수 없으나,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비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2015년 손해율은 57.4%로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합산비율은 알 수 없으나, 전체 사업비율 32%를 적용할 경우 2015년도 합산비율은 90% 정도로 추정됨.

●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사업비율이 낮으나 손해율이 높은 구조임.

- 가격자유화 이후 사업비율이 낮아진 것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실제로 온라인 채널의 확대(33.9%⁷⁾, 2016. 9)로 가격 비교가 용이하며 경쟁이 치열함.

-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손해율 개선에 의한 이익 발생 시 보험료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최근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가 인하됨.

〈표 7〉 주요국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¹⁾	평균
한국	손해율	81.0	83.0	86.7	88.3	87.6	84.7
	사업비율	23.0	21.6	21.2	20.0	19.4	20.6
	합산비율	104.0	104.6	107.9	108.3	107.0	105.3
미국 ²⁾	손해율	76.8	76.7	76.1	77.4	-	76.8
	사업비율	25.0	24.8	25.0	24.5	-	24.8
	합산비율	101.8	101.5	101.1	101.9	103.7	102.0
일본	손해율 ³⁾	69.8	66.5	61.9	59.5	57.4	63.0
	사업비율 ⁴⁾	33.8	33.0	32.3	32.2	32.1	32.7
	합산비율	103.6	99.5	94.2	91.7	89.5	95.7

주: 1) 2016년 9월 말 기준.

2) 개인용 자동차보험(Private Passenger Automobile Insurance)만을 대상으로 함.

3)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비중을 고려하여 전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추정.

4) 자동차보험만의 사업비율은 공개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율 이용.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일본 손해보험협회.

■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은 55%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나 사업비율은 36~40%로 높은 구조인데, 최근 합산비율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임.

7) 예금보험공사(2017. 2),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따른 손보사 인하 여력 분석”.

-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장기손해보험 위험·부가보험료 포함)의 사업비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부가보험료 대비 사업비가 높기 때문임.⁸⁾
 -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20% 수준임.
-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전체 사업비율 32%를 적용하면 최근 합산비율은 85% 정도로 추정됨.
 - 일본은 불규칙적인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에 의해 일반손해보험의 합산비율 변동성이 큰 것이 특징임.

〈표 8〉 주요국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⁵⁾	평균
한국 ²⁾	손해율	52.3	54.6	54.3	54.7	55.3	55.0	54.4
	사업비율	36.3	38.8	40.9	38.0	37.8	36.0	38.0
	합산비율	88.5	93.4	95.2	92.7	93.1	91.0	92.3
미국 ³⁾	손해율	81.1	72.4	61.3	62.5	-	-	69.3
	사업비율	30.8	30.6	30.5	30.2	-	-	30.5
	합산비율	111.9	103.0	91.7	92.7	93.5	-	98.6
일본	손해율	120.1	67.1	54.6	54.9	51.7	-	69.7
	사업비율 ⁴⁾	33.8	33.0	32.3	32.2	32.1	-	32.7
	합산비율	153.9	100.1	86.9	87.1	83.8	-	102.4

주: 1) 일반손해보험의 각 종목별 비중을 고려하여 비율을 추산.
 2) 장기손해보험 및 개인연금의 위험·부가보험료 포함.
 3) 공개된 데이터가 없어서 자동차보험의 매출비중 및 합산비율과 전체 합산비율을 이용하여 추산.
 4) 자동차보험만의 사업비율은 공개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율 이용.
 5) 2016년 9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일본 손해보험협회.

나. 투자영업이익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은 미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2011년 이후 평균 자산운용이익률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가 4.1%로 미국 및 일본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각각 0.5%p, 1.8%p 높음.

8) 사실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저축보험료까지 고려할 경우 높지 않음. 본고에서는 보험영업 부문에서만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가 지출된다는 다소 강한 가정으로써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을 분리함.

- 물론 이는 동기간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았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향후 각국 금리변화 및 해외투자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 9〉 주요국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²⁾	평균
한국 ¹⁾	4.5	4.4	4.0	4.0	3.8	3.6	4.1
미국	3.8	3.7	3.4	3.7	3.2	-	3.6
일본	2.1	2.1	2.3	2.5	2.7	-	2.3

주: 1) 2013년까지는 3월 말 기준 결산이며, 2014년부터 12월 말 기준 결산임.

2) 2016년 9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Federal Insurance Office; 일본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 및 일반손해보험⁹⁾ 부문의 준비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률은 미국 손해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됨.

- 책임준비금이 구분되어 운용된다면, 자동차 및 일반손해보험 관련 책임준비금의 자산운용은 저축보험료 적립금에 비해 단기자산을 중심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여 투자이익률이 다소 낮을 것임.
- 반면,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 적립금에 대한 운용은 장기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 적립금 운용으로부터 30~40bp 정도의 투자이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임.¹⁰⁾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미국 손해보험회사에는 없는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 적립금에 대한 운용으로부터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영업이익의 안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 보험료적립금 운용은 부채 규모 대비 수익성이 낮은 사업임.

9) 투자영업이익 분석에서의 일반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위험·부가보험료 적립금을 제외한 개념임. 장기손해보험 위험·부가보험료 관련 적립금은 예정이율이 부과되므로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 적립금과 유사한 투자이익률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됨.

10) 정확하게는 보험료적립금만의 운용의 이익률을 이용해야 하나 데이터 부재로 보험부채 부리이율과 자산운용이익률 간의 차이로 추정함.

5. 결론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미국과 일본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ROE가 높고, ROA는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기 저축보험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장기 저축보험 사업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2011~2015년 평균 41.6%로 미국의 0.0%, 일본의 5.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규모에 비해 적은 자본이 요구되는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 적립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험부채에 비해 자본이 적음.
 -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의 경우 보험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부채(적립금)규모에 비해 투자이익도 작아 ROA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 장기손해보험 저축보험료 적립금은 계약자에게 공시이율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 규모에 비해 투자이익이 많지 않음.
 - 보험료적립금 운용은 부채 규모 대비 수익성이 낮은 사업임.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보험영업 부문 수익성은 미국·일본 손해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수익의 안정성이 높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합산비율 평균은 일본 94.3%, 미국 96.6%, 한국 98.3%임.
 - 단, 2016년도(9월 기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의해 일본보다 다소 낮은 94.1%로 하락함.
 -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미국·일본에 비해 높지만 사업비율이 낮은 구조이며, 104%를 상회하던 합산비율이 2016년에 100% 수준으로 하락함.
 - 일본 자동차보험의 최근 5년 평균 합산비율은 95.7%로 추정되고 미국 자동차보험의 같은 기간 평균 합산비율은 102%임.
 - 손해율은 높지만 사업비율이 낮은 것은 시장 경쟁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손해율 개선에 의한 이윤 발생 시 보험료 인하(및 합산비율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 합산비율은 미국·일본보다 다소 낮으며 안정적임.
 - 미국의 경우 보험리스크가 큰 상품이 많아 손해율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우 대지진 발생으로 손해율이 변동하는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수익성이 미국, 일본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사업모형의 차이로 인해 이익 안정성과 ROE는 높은 반면 ROA는 낮은 특성이 있음.
- 보험영업 부문을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미국, 일본 손해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임.
 - 특히,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합산비율의 변동성이 낮아 보험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장기 저축보험 사업은 자산 규모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자산규모 대비 수익성이 높지 않아 ROA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kiri**